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1724~1804)

칸트는 독일의 항구 도시 쾨니히스베르크에서
가난한 마구 제조업자의 아홉 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칸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하고,
9시부터 12시 45분까지는 연구와 집필에 집중하였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산책하고, 다시 돌아와 독서를 하고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확한 습관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그의 움직임을 보고 시곗바늘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칸트는 1770년에 15년간의 강사직을 끝내고
쾨니히스베르크 대학교의 논리학·형이상학 교수로 임명되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학부들의 논쟁』 등 많은 책을 출판합니다.
칸트의 철학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되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에
흔히 **비판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의 철학은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철학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과학의 세계에서 인간의 도덕 법칙을 발견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너 자신의 인간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간에서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고
절코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